이질감

현대청운고 1-6 유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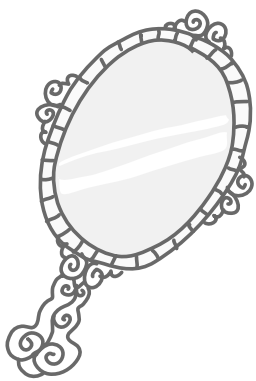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바라보다가
찍힌 사진 속의 나를 마주하게 되면
이질감이 든다.

분명 거울 속의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눈, 코, 입, 얼굴형까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다.
내 얼굴의 비대칭도 거슬리고
예쁘게만 보였던 웃는 모습마저도 이상해 보인다.

나는 평생을 거울 속의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했는데
타인이 보는 나는 내가 아는 나와는
반대로 생겼나 보다.

내가 나온 사진을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진다.
남들은 나를 이렇게 알고 있었겠구나 하며
내가 아는 거울 속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하며
이질감을 느낀다.

거울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대칭적인 것이 거울의 속성이라 믿어왔는데
진짜와는 다른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모순적인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제 진짜 나를 알아보고 싶다.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지 알아가야겠다.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 말고
보이는 것만 믿지도 말고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
둘 다가 진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질감을 없애나가야겠다.